

##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조사연구활용에 관한 연구

정 순 들\*

### I. 문제제기

우리 나라에서 사회복지 교육이 시작된 것은 1947년 이화여자대학교에 기독교 사회사업학과가 창설되면서부터이다. 당시의 사회사업 교육은 뚜렷한 사회복지의 실천현장 없이 미국의 지식을 가르치는데 만족해야 했다. 1960년대 산업화와 함께 발생된 여러 가지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해 사회복지제도와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사회복지에 대한 욕구가 강하게 대두되었고, 사회복지학과는 사회복지실천가들을 배출하기 위한 교육을 담당하게 되었다. 1980년대 이후에는 복지국가 이념이 등장하면서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기 시작하면서 사회복지전문요원이라는 명칭으로 공적분야에서 사회복지의 실천현장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1990년대에는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 복지관 등 복지관들의 대거 신설로 사회복지의 실천분야가 형성, 확충되면서 실천 학문으로서 사회복지의 본질에 어느 정도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복지실천현장의 확대, 사회복지 전문 인력의 급증, 사회복지학과의 증설 등 사회복지학의 외적 조건의 발전은 동시에 한국형 사회복지 제도의 모색, 사회복지실천에서의 전문성제고, 학문으로의 정착 등 막중한 과제를 사회복지학에 요구하게 되었다(김연옥, 1998: 86).

또한 최근에는 경험적으로 입증된 사회복지실천이 강조되면서 조사연구의 지식이 사회복지실천 속에서 결합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사회복지사들은 클라이언트를 위해 경험적으로 입증된 개입방법을 사용할 윤리적 책임성을 가지게 되었다(Barber, 1996; Klein & Bloom, 1994; Reid, 1994). 여기서 경험적으로 입증된 개입방법이란 사회복지사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효능감을 보여주는 것으로 과학적인 조사연구방법을 통해 가능하다. 또한 입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법가들도 사회복지사들이 임상연구를 통해 나온 지침을 효과적 실천활동에 적용해 주기를 기대한다.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연구가 활용되는 정도(research utilization)는 다음과 같은 격언을 통해서도 강조된다. “조사연구, 만약 그것이 중요하다면, 그것은 당연히 사용되어야만 한다(Herie & Martin, 2002, 재인용: 87).” 또한 실천 활동에 대한 과학적 입증의 중요성은 과학적 기반의 실천(scientifically based practice), 입증 기반의 실천(evidence based practice), 발전적 연구와 활용(developmental research and utilization: DRU) 등의 이름으로 불리우며 강조되고 있다(Whittaker, 2002).

조사연구와 실천에 대한 이러한 강조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사회복지분야에서는 조사연구와 실천 사이에 통합이 결여되어 있다(Chavkin, 1993; Epstein, 1996; Hess & Mullen, 1995; Herie & Martin, 2002). 예를 들어 정신건강분야의 서비스는 70%가 사회복지사에 의해 제공되지만, 사회복지사에 의해 수행되는 연구는 1%에 불과하다(Zlotnik, Biegel, Solt, 2002: 319). 사회복지실천가는 과학적 방법을 사용할 기술이 부족하고(Globerman, 1993), 학술지의 연구결과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Lindsey & Kirk, 1992). 반면에 사회복지 연구자들은 사회복지 실무현장의 어려움을 고려하지 못한 채 현장과 유리된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실천가와 연구자의 의사소통 차이에 의해 조사연구와 실천을 두 개의 분리된 영역으로 구분하는 경향이 있다(Wynne, 1983).

사회복지에서 사회복지실천현장과 사회복지연구사이의 지속되는 갭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가 태동한 미국에서 여러 가지로 연구되어 왔고 현재도 강조되고 있지만, 우리 나라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연구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특히 사회복지계에서 연구방법론의 실천현장 적용에 대한 목소리를 높여왔지만, 실제로 얼마나 많은 사회복지사들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사회복지의 과학화를 위해 일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이러한 이슈를 다루고 있는 학술연구도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 나라의 사회복지실천현장과 사회복지연구사이의 갭에 대해 살펴보고 이러한 갭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에 따른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복지사들은 실천현장에서 사회복지연구지를 통해 발표되고 있는 논문에 대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실제로 실무에 적용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실무적용에 있어서 연령, 성별, 교육수준, 사회복지실천분야 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사회복지사들은 실천현장에서 사회복지연구지에 발표된 논문을 적용하고 있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고찰해 보고자 한다.

세째, 사회복지사들이 사회복지연구지를 살펴보거나 실천현장에서 적용하는 경우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은 무엇인지 분석해 보고자 한다.

네째, 사회복지연구가 실천현장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접근이 필요한지 그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즉 사회복지실천과 연구사이의 갭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보고자 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사회복지와 조사연구

사회복지가 본격적으로 우리 나라에서 뿌리를 내리고, 사회복지실천의 전문성에 대한 여러 가지 도전이 가중되고 있는 이때 사회복지의 전문성과 효과성을 입증하기 위해 사회복지에 대한 과학적 접근은 매우 중요하다. 전통적으로 볼 때 사회복지실천에서 실증적인 조사연구에 대한 관심은 크지 않았다. 학계와 실무분야 모두에서 과학적이며, 체계적인 연구방법에 비중을 두지 않았던 이유를 김연옥(1993: 202)은 사회사업의 미국적 특성에서 찾는다. 이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개량가인 Richmond에 의해 사회사업이 주도되었는데 이때 인도주의와 사회개량에의 열정이라는 가치적 측면이 이들의 활동을 이끌면서 기술적인 부분이 가리워 졌다. 둘째, 20년대와 30년대에 사회사업에 강력한 영향을 준 정신분석학은 이론의 특성상 경험에 기초한 과학적 분석과 검증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체계적이며 과학적인 접근을 지연시켰다. 셋째, 60년대 이후 강조된 자유와 평등의 추구는 사회사업이 다시 가치론에 휩싸이게 하였고, 결국 사회복지의 객관적이며 전문적인 발전을 저해하게 되었다. 그 결과 사회사업은 전문적 기반으로 도덕적 당위성이나 사회사업가 개인의 가치적 판단 등을 경험적 검증을 과학적인 지식보다 더 우위에 두게 되었다.

그러나, 1970년대 들어서면서 막대하게 증가된 사회복지 재정에 대한 의문과 책임성 완수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사회사업전문직은 이를 과학적으로 증명해야 할 위치에 서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사회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논쟁이 시작되었으며, Fischer(1973)는 사회복지가 비효과적인 이유는 경험적, 체계적, 과학적 방법에 의한 서비스가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한 논쟁은 1980년대 까지 계속되었다(Woods, 1978; Fischer, 1979; Reid & Hanrahan, 1982; Thomlison, 1984; Rubin, 1985). 1980년대에 와서는 사회복지가 효과적인 전문직이 되기 위해서는 비과학적 지식체계에서 벗어나 경험적으로 검증된 지식과 기법에 의존해야

된다는 사회사업의 과학화로 이어졌다. 즉 과학적인 조사방법에 의해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사정하고, 또한 효과성이 검증된 방법이 개입방법으로 적용되어야 하며, 그 결과를 다시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Fischer(1979)와 Hudson(1978)의 과학적 방법에 맞서 몇몇 학자들(Heineman, 1981; Vigilante, 1974)은 사회사업은 각양각색의 살아있는 인간에게 복잡한 상황에서 다양한 사회사업가에 의해 제공되는 활동임을 강조하면서 사회사업의 가치측면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조사방법에 대해 등한시하였던 사회복지계에서 조사연구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 단적인 예로 미국사회사업교육협회는 조사연구방법을 사회사업 교육의 학부, 대학원, 박사과정의 중요과목으로 공인하였다. 사회사업 개입의 전과정에 조사연구의 논리와 단계를 적용시키는 방법(Tripodi and Epstein, 1978), 조사연구결과에서 실천적 함의와 지침을 도출해 내는 방법(Gordon, 1984; Rothman, 1978), 조사연구와 실천을 통합하려는 노력으로 대표적인 단일사례설계가 적극적으로 연구되어 제시되는 등 (Bloom & Fischer, 1982) 다양한 방법이 시도되었다.

1990년대에 와서도 조사연구를 강화하기 위한 테스크 포스팀이 여러 차례 결성되었으며, IASWR(Institute for the Advancement of Social Work Research)이 창설되었다. IASWR은 연방정부의 보조를 받으며, 사회복지 교육을 통해 실무와 조사연구가 연결되고, 조사연구를 실행할 수 있는 실천가를 양성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 왔다. 현재는 40% 정도의 정부보조와 60% 정도의 사회복지 전문가들의 기여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IASWR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SSWR(Society for Social Work and Research)가 설립되었는데 SSWR은 매년 박사과정생과 교수,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조사연구의 개발과 기회, 네트워크 등을 제공하고 있다. IASWR은 2001-2003의 3년 계획을 가지고 조사연구개발, 실천에서의 조사연구, 정책에서의 조사 연구를 통해 사회복지 조사연구를 강화하고자 하고 있다(Zlotnik 등, 2003). 또한 사회복지교육을 하는 한 대학에서는 증거기반의 실천(evidence-based practice)을 교육의 원칙으로 삼기도 하였다(Howard, McMillen & Pollio, 2003).

우리 나라에서도 사회사업이 과연 존재할만한 전문직인가, 서비스의 효과는 있는 것인가, 즉 사회사업의 책임성, 전문성에 대한 질문이 조만간 제기될 것이라고 하면서 이에 대한 대비가 시급함을 주장하면서 사회사업의 과학화를 공론화 하였다(이창호, 1990). 김연옥(1993: 205)은 사회사업이 우리 나라 현실에 근거한 학문적 활동에 의해 이론과 지식을 정립하고 이에 근거하여 서비스가 제공되고 그 효과성을 입증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전문직이라고 자부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위한 조사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 2. 사회복지실천과 조사연구활용

최근 사회복지학의 연구 경향을 분석한 한 연구에 따르면 최근 조사연구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최균, 1995). 최균의 연구, 김연옥의 연구(1998), 양옥경의 연구(1998) 등은 몇 안되는 사회복지학 연구동향에 관한 연구물들이다. 황성철(1998: 244)은 우리 나라 상황에 적합하고 효과적인 치료방법과 모델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방법을 통해 어떤 모델과 치료기법이 치료집단의 형태 및 상황에 따라 효과를 나타내는지에 관한 연구가 요구된다고 하였다.

조사연구활용이란 조사연구의 방법을 사회복지실천현장에 적용해 사용하는 것과 조사연구의 결과를 사회복지실천현장에 적용하여 사용하는 것 두 가지를 의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자보다는 후자 쪽에 초점을 두고 접근하고자 한다<sup>1)</sup>. 즉 구체적으로 조사연구활용에 관해 살펴보면 클라이언트에 대한 개입계획을 세우고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조사연구의 결과를 활용하는 것이다. 이보다 한걸음 더 나아가 조사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입안자를 설득하여 클라이언트를 위한 상황을 변화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게 된다.

사회복지사들은 조사연구가 중요하고 유용하다는 점에는 대체로 동의하지만 실제적으로 이러한 조사연구를 수행하거나 조사연구의 결과를 실천 과업을 이해하는데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김연옥, 1993; Haynes, Lemsky, Sezton-Radek, 1987: 515-519; Herie와 Martin, 2002). 사회사업가의 실무수행이 조사연구와 거의 무관하게 이루어짐을 처음으로 밝혀 이 분야의 연구를 촉발시킨 Rosenblatt(1968)의 연구에 따르면 사회복지사들은 다루기 힘든 클라이언트의 문제에 직면했을 때 주로 슈퍼바이저의 도움에 의존하며, 관련 조사연구는 거의 참고자료로 활용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실무자의 낮은 조사활용과 실행은 Casselman (1972)의 연구와 Kirk와 그의 동료들(1976)에 의해 수행된 연구에서 다시 확인되었다. 응답자의 56%가 어려운 사례에 직면해도 조사연구물에 의존하지 않는다고 답했으며, 조사보고서도 거의 읽지 않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사회복지사들은 사회조사방법이 실무에 가장 도움이 안되는 방법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Casselmann, 1972).

한편 사회복지사의 조사연구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살펴보면, 조사연구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학교에서 수강한 통계와 조사연구과목수가 많을수록 조사연구 활용이 활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직접적 서비스 제공자보다는 슈퍼바이저나 행정가들이, 그리고 케이스워크 같은 실천방법론 전공자보다 지역사회조직

1) 전자에 관해서는 후속연구에서 다룰 예정이다.

론이나 행정 전공자들이 조사실행수가 높고, 연구보고서 이용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연한이 조사실행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근무연한이 오래 될수록 조사기회가 많으며, 반면에 서비스의 이론적 관점에 따라 실천의 조사가능성의 편차가 크다고 한다(Kirk et al., 1981).

실무자의 낮은 조사실행은 홍콩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비록 단일사례방법에 국한하기는 하였지만 홍콩의 사회복지사도 조사실행을 거의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조사연구방법에 대한 지식정도가 조사실행을 결정하는 변수임이 밝혀졌다(Mancoske & Pui-fong, 1990). 이스라엘에서도 홍콩에서와 비슷한 연구가 실행되었는데, 사회사업전문직에서 조사의 중요성, 실무에서 조사결과의 유용성, 조사결과에 대한 신뢰성 등에서 사회복지사는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실제 조사실행은 거의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Lazar, 1991).

한편 이와 다른 결과로는 Penka와 Kirk(1991)에 의해 수행된 연구인데, 연구방법에 기초한 조사수행은 매우 낮았지만 클라이언트 변화에 대한 기록 등과 같은 나름대로의 평가기준과 방법으로 임상평가를 활발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에서 주의할 점은 흔히 조사방법이라고 할 때 양적인 방법만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아 양적 조사에 의하지 않은 조사를 조사의 결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발생한다는 사실이다. 질적인 방법에 의해 조사한 것도 조사연구에 의해 조사한 것이므로 이 부분까지 포함하여 해석해야 한다는 점이다. 실제로 질적 방법까지 포함하여 조사연구에 대해 조사한다면 좀 더 많은 수의 사회복지사들이 조사방법을 활용한다고 보고하게 될 것이다. 이들의 조사(Penka와 Kirk, 1991)에 의하면, 사회복지사가 조사기술에 대해 많이 알수록, 여성일수록, 임상정신은 비전통적이며, 사회사업 석사학위(MSW)를 취득한지 오래되었을수록, 실무경력이 길수록 조사수행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I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대상은 우리 나라의 사회복지실천 현장에서 실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이다. 본 연구의 표본들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원 명단으로 하려고 했지만, 협회의 명단은 사회복지사가 소속되어 있는 기관의 종류나 기관명이 데이터 베이스화 되어있지 않고, 등록된 사회복지사들중 약 30-40%만 현직 사회복지사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명단활용이 어려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단계 표본 추출법을 활용하여 표본을 추출하였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사회복지사들이 일하고 있는 각 시설협회와 연합회 등의 리스트를 인터넷을 통해 입수하였다. 한국사회복지관협회,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한국아동복지시설연합회,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한국제가노인복지협회,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 한국정신보건사회사업학회,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 한국 사회복지복지시설협의회, 한국부랑인시설연합회 등이었다. 이들 입수한 리스트를 사회복지관, 단종 복지관, 시설, 보건 및 정신의료기관, 기타 기관 등 5개의 종류로 나누어 각각의 종류별로 기관의 리스트를 지역별로 만들었다. 기관의 종류별로 나누어진 전체 기관의 리스트에서 지역의 분포 비율을 고려하여 100에서 200개의 기관을 추출하였다. 기관 표본 추출은 단순무작위 추출법에 의해 기관의 명단을 추출하였다. 두 번째 단계는 첫 번째 단계에서 선정된 기관의 사회복지사의 명단을 찾아 사회복지사중에서 표출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표출된 기관의 전체 수가 1000개 정도 되었으므로 이들 기관의 사회복지사들 명단을 입수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용이하지 않아 선정된 기관으로 설문지를 발송하면서 사회복지사 한 명이 꼭 설문지에 응답해 주도록 요청하는 공문을 함께 발송하였다.

자료수집은 본 조사가 이루어지기 전 설문지에 대한 사전 자료수집과 본 자료수집의 두 단계에 걸쳐 이루어졌다. 사전조사는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이며, 복지관, 정신의료사회사업분야, 시설분야 등에서 일하고 있는 각 분야의 사회복지사로 하였으며, 모두 15명이 참여하였다. 이들의 의견에 따라 설문지의 언어를 수정하고,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설문지의 내용에 대한 수정도 이루어졌다.

본 조사는 우편조사를 통해 실시하였으며, 응답자의 익명성 보장을 위해 엽서를 동봉해 설문지가 수거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따로 엽서를 보내주도록 하였다. 그러나, 실제 돌아온 엽서는 설문지의 수 보다 훨씬 적어 실제 어디서 설문지가 왔는지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는 설문지에 응답하는 사회복지사들이 엽서를 따로 보내는 것에 익숙하지 않았음을 나타내는 것이며, 이러한 예로 엽서를 설문지 봉투에 함께 봉하여 보내는 사회복지사들도 있었다. 2차 메일은 1차 메일 발송후 3주후에 이루어 졌으며, 1차 메일에서 엽서가 도착한 리스트를 제외한 후 500 여개의 설문지를 발송하였다. 다량의 설문지가 발송되었으므로 요금별납의 방법을 활용하였다. 1차 메일 발송은 5월 중순에 이루어졌으며, 도착한 설문의 수는 총 발송된 1,100개의 설문지중 500 여개에 달하였으며, 2차 메일 발송은 6월 초에 이루어졌으며, 도착한 설문은 약 100 여개로 모두 합하여 약 660개의 설문이 도착하여 약 60%의 높은 회수율을 보였다. 응답자중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의 설문지를 제외하고, 부실한 응답 등을 제외한 후 총 569개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 2. 측정

### 1) 조사연구활용

사회복지실천에서 조사연구활용은 Estabrooks(1999a, 1999b)가 사용한 RU Survey (Research Utilization Survey)를 우리 나라의 사회복지 실천현장에 맞도록 수정해 4문항을 사용하였다. 도구의 내용은 전반적인 조사연구의 활용, 직접적인 조사연구의 활용, 간접적인 조사연구의 활용, 설득을 위한 조사연구의 활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7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본 도구는 내용타당도와 구성체 타당도가 입증된 도구이며, 신뢰도도 입증된 도구여서 본 연구를 위해 활용가능한 도구이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계수 알파는 .874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2) 조사연구태도

조사연구태도는 Kirk 와 Rosenblatt(1981)가 개발한 Kirk-Rosenblatt Research Inventory(K-RRRI)를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하여 측정하였다. 이들이 사용한 조사연구에 대한 태도는 중요성(importance), 유용성(usefulness), 연구의 비편견적 본질(Unbiased Nature) 등 3부분으로 나누어지며, 각각 7개 문항과 5개 문항, 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는 1에서 6점의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도록 되어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조사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 것이다. 이 척도의 신뢰도 계수 알파는 중요성이 .65, 유용성이 .71, 비편견적 본질이 .78로 나타나 신뢰성이 높은 도구임이 입증되었다. 그러나, 문항의 중복이 있고,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 질문이 있어 이를 제거한 후 중요성 7개 문항, 유용성 5개 문항만을 사용하고 5점 척도에 응답하도록 수정하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김연옥(1993)이 이 도구를 가지고 연구한 바 있으며, 중요성이 .72, 유용성이 .80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중요성이 .582, 유용성이 .702로 나타났다.

### 3) 실무태도

실무태도는 사회복지실무본질에 대한 관점을 나타내는 것으로 Penka와 Kirk(1991)가 개발한 11개의 문항중 우리 실정에 맞도록 9개의 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치료관계의 측정가능성, 객관적 측정의 가치와 변화, 개입으로 야기되는 변화의 측정가능성, 과학으로서 보다는 임상적 직관의 가치 선호 등에 관한 신



념으로 구성되어 있다(Penka & Kirk, 1991: 516). 김연옥(1993)의 연구에서 이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72이었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가 .502으로 나타났다. 5점에 가까울수록 임상정신이 전통적인 사회사업적 경향을, 즉 사회사업가의 직관, 경험 등을 중시하는 것을 의미하며, 1점에 가까울수록 보다 과학적이며, 경험적으로 검증된 지식과 이론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 4) 기타 변수들

##### (1) 배경변인들

사회복지사의 배경을 나타내는 변인들로는 성별, 나이, 실무경력, 직접서비스비율 등이다. 성별은 여성을 0, 남성을 1로 측정하였으며, 나이는 만나이를 측정하였다. 실무경력은 현재 조사시점까지 사회복지 분야에서 일한 개월 수로 측정하였다. 직접서비스비율은 실천활동과 행정활동을 100이라고 했을 때 실천활동이 차지하는 비율로 측정하였다. 그 밖의 배경변수로는 교육수준, 전공, 사회복지사 자격급수 등이 있는데 이들 변수들을 다음과 같이 측정하였다. 교육수준은 고졸, 초대졸, 대학졸, 대학원재학, 대학원졸업으로 구분하였다. 전공은 사회복지전공과 기타전공으로 나누어 측정하였고, 사회복지사 자격급수는 1, 2, 3급으로 측정하였다.

##### (2) 조사연구관련 경험 변인들

사회복지사의 조사연구관련 경험 변수들은 수강조사과목수, 조사연구 재교육경험, 학회가입 수, 학회참석경험, 저널이용경험, 조사연구실행경험 등이다. 수강조사과목 수는 조사와 관련된 과목을 나열한 후 수강한 것에 표시하도록 하여 표시한 수를 합산하여 측정하였다. 조사연구 재교육경험은 재교육에 참여한 경험 유무로 측정하였다. 학회가입 수는 현재 가입하고 있는 학회를 모두 쓰도록 하여 그 수를 합산하여 측정하였다. 학회참석경험은 지난 3년간 학회에 참석한 경험의 유무로 측정하였으며, 저널이용경험과 조사연구실행경험 등은 지난 1년간 경험한 유무로 각각 측정하였다.

### 3.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를 사용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사회복지사의 조사연구 활용에 관해 분석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각 독립변수별, 즉 성별, 나이, 교육수준, 사회복지실천분야에 따른 실무활용정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보기

위해 t-test와 ANOVA 등의 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사회복지사가 조사연구활용을 하지 않을 경우 그 이유에 대한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사회복지사의 조사연구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기 위해 상관관계와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IV. 결과

###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사회복지사들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성별로는 여성이 346명으로 전체 응답자중 60.8%, 남성은 223명으로 전체의 39.2%를 나타냈다. 이는 사회복지사중 남성보다 여성이 현저히 많은 우리 나라 사회복지사들의 성비를 본 조사가 잘 반영해 주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조사대상 사회복지사의 평균연령은 32.20세로 나타났고, 연령분포는 26-35세 이하가 65.4%로 가장 많았다. 다음이 36-45세 이하로 19.0%, 25세 이하가 11.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은 대졸이 273명(48.2%)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이 대학원졸로 164명(29.0%)이 해당하였다. 대학원에 재학중인 사회복지사도 92명(16.3%)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급수별로 살펴보면, 1급이 511명(89.8%)으로 약 90%의 사회복지사가 1급의 자격증을 가지고 실무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소지자는 9.8%, 3급 소지자는 0.4%였다. 다음으로 자격증의 취득과정을 보면 4년간 사회복지를 전공하고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와 대학원에서 사회복지전공을 하고 취득한 경우가 각각 73.1%와 10.2%로 대부분의 사회복지사들은 학부와 대학원에서 사회복지를 전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부터 실시하여 자격증을 취득한 사회복지사들도 4.8%분포하고 있었으며, 양성과정을 통해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도 3.9%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사회복지사들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외에도 소지하고 있는 자격증의 종류를 보면 레크리에이션과 관련된 자격증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이 정신보건 사회복지사, 컴퓨터 관련 자격증, 청소년 지도사, 상담관련 자격증, 교사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어떤 사회복지사들은 무려 4개의 기타 자격증을 소유하고 있다고 보고하기도 하였다.

사회복지사들의 평균 경력은 72.60개월로 약 6년 정도의 경력이었다. 경력의 분포를 보면 2년 이하, 4년 이하, 6년 이하가 비교적 고르게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사회복지사가 소속되어 있는 기관의 유형을 보면 사회복지관이

212개로 38.4%를 차지하여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이 기타이용시설 16.7%, 병원 16.5%, 노인 및 장애인 복지관 12.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사회복지사들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43.32시간으로 나타났지만, 45시간 이상 근무한다는 응답이 과반수를 넘고 있어 초과 근무를 하는 사회복지사가 많이 존재하는 것을 입증해 주었다.

<표 1> 조사대상 사회복지사의 일반적 특성

항목	빈도 (%)	항목	빈도 (%)
<b>성 별</b>		<b>기타자격증</b>	
남자	223 (39.2)	레크리에이션	60 (10.5)
여자	346 (60.8)	정신보건	58 (10.2)
		상담	25 (4.4)
<b>나 이</b>		보육, 유치원	21 (3.7)
25세 이하	65 (11.5)	컴퓨터활용	35 (6.2)
26-35세	371 (65.4)	청소년지도사	28 (4.9)
36-45세	108 (19.0)	교사, 평생교육	24 (4.2)
46-55세	17 (3.0)	기타	36 (6.3)
56세 이상	6 (1.1)		
평균(SD)	32.20세(6.33)	<b>사회복지경력</b>	
<b>교육수준</b>		24개월이하	95 (16.8)
고졸	4 (0.7)	25-48개월이하	120 (21.2)
초대졸	33 (5.8)	49-72개월이하	124 (21.9)
대졸	273 (48.2)	73-96개월이하	73 (12.9)
대학원재학	92 (16.3)	97-120개월이하	65 (11.5)
대학원졸	164 (29.0)	121개월이상	90 (15.9)
		평균경력	72.60 (53.11)
<b>사회복지사 자격급수</b>		<b>사회복지사 소속기관 유형</b>	
1급	511 (89.8)	사회복지관	212 (38.4)
2급	56 (9.8)	노인, 장애인복지관	71 (12.9)
3급	2 (0.4)	상담센터	13 (2.4)
		병원	91 (16.5)
<b>자격증 취득과정</b>		기타이용시설	92 (16.7)
연수원졸업	22 (3.9)	생활시설	49(8.9)
2년제 대학졸업	43 (7.6)	기타생활시설	24 (4.4)
4년제 대학졸업	415 (73.1)		
대학원졸업	58 (10.2)	<b>근무시간 (평균근무시간)</b>	43.42 (15.10)
국가고시	27 (4.8)	44시간이하	238 (42.4)
기타	3 (0.5)	45시간이상	323 (57.6)

## 2. 조사연구와 관련된 특성

### 1) 조사연구관련 특성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사회복지사들의 조사연구 관련 특성을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먼저 사회복지사들의 수강조사과목수를 보면 전혀 수강한 경험이 없다는 응답 1.9%를 제외하면 나머지 98.1%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과목을 수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과목을 수강한 사회복지사의 비율이 36.0%로 가장 높았으며, 1과목을 수강한 사회복지사는 32.6%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사들의 재학시절 평균 수강조사과목수는 2.07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사회복지사의 조사연구 재교육 경험을 보면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21.4%에 불과해 학교를 졸업한 후 조사연구와 관련된 재교육율이 매우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사들의 학회에 대한 관심도를 학회가입수, 학회참석경험, 저널이용경험 등으로 살펴보았다. 사회복지사들이 가입한 학회의 수는 하나도 없다는 응답이 425명 74.7%로 나타났으며, 1개의 학회에 가입하고 있다는 사회복지사의 수는 17.9%로 나타나 사회복지사들의 낮은 학회 관심도를 보여주었다. 학회참석경험에서는 지난 3년간 학회에 참석한 경험이 있다는 사회복지사는 51.5%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저널이용경험에 대한 답변에서는 73.6%의 사회복지사가 읽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여 학회보다는 저널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내 주었다.

다음으로 조사연구실행경험에서 연구를 실행해 본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69%로 비교적 높은 비율을 보여 주었다.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회복지사중 실제로 사용해본 조사설계는 서베이가 88.1%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이 단일사례연구로 34.2%나 되었다. 실험설계의 경우는 18.1%로 나타났으며, 기타가 1.8%였다. 사회복지사들이 사용해 본 조사설계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들이 연구저널에 결과를 발표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개별 기관 수준에서의 연구설계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조사연구가 활용된 분야를 보면 서비스 만족도 조사가 73.9%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이 지역사회육구조사 61.2%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많은 수의 사회복지사들은 적어도 이 두 조사중 하나를 실행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인다. 특이할 만한 점은 사회복지사들의 평가조사실행율이 상당히 높았다는 점이다. 즉 48.8%의 사회복지사들이 평가조사를 수행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를 실제로 학회나 실무자간 보고할 기회가 없어 기관차원에서 실시하는 조사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다음으로 사회복지사들이 주로 참고로 활용하고 있는 조사연구자료는 학술논문 57.0%, 인터넷 자료 47.1%, 정부간행물 43.9%, 학위논문 43.3%, 신문과 소식

지 각각 24.2%,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사회복지사들의 조사연구관련 특성

항목	빈도 (%)	항목	빈도 (%)
<b>수강조사과목수 (평균)</b> 2.07(1.09)		<b>조사연구실행경험</b>	
없다	11 (1.9)	있다	388 (69.0)
1과목	185 (32.6)	없다	174 (31.0)
2과목	204 (36.0)		
3과목	111 (19.6)	<b>사용해 본 조사설계(모두 응답) (388명중)</b>	
4과목이상	56 (9.9)	서베이	346 (88.1)
		단일사례설계	132 (34.2)
<b>조사연구 재교육경험</b>		실험설계	70 (18.1)
있다	118 (21.4)	기타	7 (1.8)
없다	433 (78.6)		
		<b>조사연구 활용 분야(모두 응답)(388명중)</b>	
<b>학회가입 수 (평균)</b> 0.34		지역사회육구조사	237 (61.2)
없다	425 (74.7)	서비스만족도조사	286 (73.9)
1개	102 (17.9)	서비스과정조사	67 (17.3)
2개	38 (6.7)	서비스평가조사	189 (48.8)
3개 이상	3 (0.7)	기타	26 (6.7)
<b>학회참석경험</b>		<b>활용하는 조사연구자료 종류</b>	
참여경험있음	273 (51.5)	학술논문	321 (57.0)
참여경험없음	257 (48.5)	학위논문	244 (43.3)
		정부간행물	247 (43.9)
<b>저널이용경험</b>		신문	136 (24.2)
경험있다	356 (73.6)	소식지	136 (24.2)
경험없다	128 (26.5)	인터넷	265 (47.1)
		기타	33 (5.9)

## 2) 조사연구활용이 안되는 이유

사회복지사들이 사회복지실천활동에서 조사연구활용을 하지 않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n=175), 그 이유에 대해 답하도록 하였는데, 결과는 <표 3>과 같다. 응답 결과 1순위는 조사연구에 대한 낮은 지식수준 때문에 조사를 수행하지 못한다는 것으로 전체의 37.5%를 차지하였다. 2순위는 개인적인 시간의 부족으로 인해 조사연구를 실행할 수 없다는 응답으로 전체의 25.4%를 차지하였다. 3순위는 기관의

지원이 없어 조사연구를 실행할 수 없는 응답으로 전체의 26.2%를 차지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로 볼 때 아직도 사회복지실천현장과 조사연구활용 사이에 갭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예를 들면 관련연구가 존재하기 않기 때문에 조사연구를 실행할 수 없다는 응답도 상당수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 이를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기관의 재정부족이나 담당하고 있는 사례의 수가 너무 많아 조사연구를 실행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응답을 통해 볼 때 사회복지기관의 환경이 조사를 실행하는데 긍정적인 환경이 아님을 시사해 주었다. 조사연구의 어려움중 사회복지사 본인의 조사연구에 대한 지식의 부족 때문에 현장에서 조사연구를 실행하기가 어렵다는 응답에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사연구에 대한 지속적인 재교육 등에 사회복지사들이 자유롭게 참여하여 조사연구를 스스로 실행할 수 있도록 돕는 장치가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표 3> 조사연구활용이 안되는 이유 (n=174)

1순위		2순위		3순위	
구분	빈도(%)	구분	빈도(%)	구분	빈도(%)
낮은 지식수준	62 (37.5)	개인시간부족	35 (25.4)	기관지원부재	34 (26.2)
개인시간부족	47 (28.5)	낮은지식수준	25 (18.1)	관련연구부재	27 (20.8)
관련연구부재	17 (10.3)	기관지원부재	25 (18.1)	개인시간부족	21 (16.2)

### 3) 주요변수별 조사연구태도 및 조사연구활용에 관한 차이 분석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사회복지사들의 주요변수별 조사연구태도와 조사연구활용 등에 대한 차이를 분석해 보면 <표 4>와 같다. 조사연구태도는 중요성과 유용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조사연구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낸다. 조사연구태도에서 중요성 점수평균은 3.50으로 사회복지사들의 조사연구의 중요성에 대한 태도는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용성 점수의 평균 역시 3.52로 중요성 보다 다소 높으면서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연구태도에서 중요성의 경우 성별과 사회복지실천분야별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나이(F=2.55, p<.05)와 교육수준(F=9.90, p<.001)에 따라서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이에 있어서는 30대가 조사연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육수준에서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조사연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조사연구태도에서 유용성의 경우 사회복지실천분야별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성별(F=-2.32,

p<.05), 나이(F=3.22, p<.05), 그리고 교육수준(F=22.65, p<.001)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성이 여성보다 조사연구를 더 유용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이와 교육수준의 경우는 중요성에서 나타난 결과와 마찬가지로 30대와 높은 교육수준일수록 조사연구를 유용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조사연구활용에 대한 점수는 7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조사연구를 많이 활용하는 것인데 평균점수는 1.77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사들이 조사연구활용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각 변수별 차이로는 나이와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차이가 없지만, 성별과 사회복지실천분야에 따라서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에 비해 남성의 조사연구활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천분야로는 복지관이 다른 분야보다 조사연구활용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주요변수별 조사연구태도와 조사연구활용의 차이

항목	조사연구태도				조사연구활용		
	중요성		유용성		평균	t/F	
	평균	t/F	평균	t/F			
성별	남성	3.50		3.58		2.01	
	여성	3.49	-1.10	3.48	-2.32*	1.58	-3.13**
나이	25이하	3.43		3.38		1.64	
	26-35	3.49		3.52		1.73	
	36-45	3.58		3.64		1.92	
	46-55	3.45		3.44		1.44	
	56이상	3.19	2.55*	3.17	3.22*	1.55	.65
교육수준	대졸	3.44		3.41		1.68	
	대학원재	3.56		3.53		1.76	
	대학원졸	3.61	9.90***	3.75	22.65***	1.94	1.485
실천분야	복지관	3.50		3.53		2.00	
	상담센터	3.59		3.57		1.65	
	병원	3.49		3.56		1.39	
	기타이용시설	3.54		3.55		1.70	
	장단기생활시설	3.43		3.37		1.55	
	기타생활	3.49	.547	3.43	1.136	1.30	3.067*
전체 평균(SD)		3.50(.41)		3.52(.53)		1.77(1.47)	

\*p<0.05; \*\*p<0.01; \*\*\*p<0.001

### 3. 조사연구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 1) 상관관계 분석

사회복지사의 조사연구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찾아보기 위해 성별, 나이, 실무경력, 실무태도, 직접서비스비율 등 일반적 특성과 수강조사과목수, 조사연구 재교육경험, 학회가입수, 저널이용경험, 조사연구실행경험, 조사연구의 중요성, 조사연구의 유용성 등 조사연구관련 변수들을 가지고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먼저 회귀식을 검증하기에 앞서 독립변수들간의 상관관계를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표 5>를 보면, 분석에 사용된 변수들간의 상관 계수 값이 모두 .70 미만으로 독립변수들 사이에 상관관계는 회귀분석을 실시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연구활용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갖는 변수들을 살펴보면, 성별로는 여성보다는 남성의 조사연구활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r=.144, p<.01$ ). 수강조사과목수가 많은 사회복지사일수록( $r=.153, p<.01$ ), 조사연구 재교육경험이 있을수록( $r=.195, p<.001$ ), 학회가입수가 많을수록( $r=.088, p<.05$ ), 저널이용경험이 있을수록( $r=.276, p<.001$ ), 조사연구실행경험이 있을수록( $r=.186, p<.001$ ), 조사연구에 대한 중요성태도가 높을수록( $r=.112, p<.05$ ), 그리고, 조사연구에 대한 유용성태도가 높을수록( $r=.187, p<.001$ ) 조사연구활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조사연구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간의 상관관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 성별	1.00												
2. 나이	.247 <sup>***</sup>	1.00											
3. 실무경력	.097 <sup>*</sup>	.654 <sup>***</sup>	1.00										
4. 실무태도	-.050	-.121 <sup>**</sup>	-.169 <sup>***</sup>	1.00									
5.직접서비스비율	-.135 <sup>**</sup>	-.144 <sup>**</sup>	-.207 <sup>***</sup>	.090 <sup>*</sup>	1.00								
6.수강조사과목수	.078	.020	-.033	-.008	.042	1.00							
7.조사재교육경험	-.019	.023	.126 <sup>**</sup>	-.094 <sup>*</sup>	-.067	.135 <sup>**</sup>	1.00						
8. 학회가입수	-.129 <sup>**</sup>	.092 <sup>*</sup>	.168 <sup>***</sup>	-.130 <sup>**</sup>	.206 <sup>***</sup>	.027	.045	1.00					
9. 저널이용경험	.110 <sup>*</sup>	.169 <sup>***</sup>	.106 <sup>*</sup>	-.026	.035	.135 <sup>**</sup>	.094 <sup>*</sup>	.083	1.00				
10.연구실행경험	.098 <sup>*</sup>	.102 <sup>*</sup>	.165 <sup>***</sup>	-.096 <sup>*</sup>	-.069	.163 <sup>***</sup>	.192 <sup>***</sup>	.069	.198 <sup>***</sup>	1.00			
11. 연구 중요성	.003	.052	.093 <sup>*</sup>	-.188 <sup>***</sup>	-.088 <sup>**</sup>	.047	.114 <sup>**</sup>	.106 <sup>*</sup>	.141 <sup>**</sup>	.140 <sup>**</sup>	1.00		
12. 연구 유용성	.097 <sup>*</sup>	.074	.131 <sup>**</sup>	-.384 <sup>***</sup>	-.090 <sup>*</sup>	-.014	.124 <sup>**</sup>	.120 <sup>**</sup>	.127 <sup>**</sup>	.175 <sup>***</sup>	.344 <sup>***</sup>	1.00	
13. 조사연구활용	.144 <sup>**</sup>	.002	.020	-.080	-.068	.153 <sup>**</sup>	.195 <sup>***</sup>	.088 <sup>*</sup>	.276 <sup>***</sup>	.186 <sup>***</sup>	.112 <sup>*</sup>	.187 <sup>**</sup>	1.0

\* $p<.05$ , \*\* $p<.01$ , \*\*\* $p<.001$



## 2) 다중회귀분석

조사연구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찾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6>과 같이 나타났다. 이 모델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F=7.740$ ,  $p<.001$ ), 16.7%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사회복지사의 조사연구활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은 저널이용경험( $\beta=.228$ )이었다. 즉 저널을 읽은 경험이 많을수록 사회복지사의 조사연구활용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영향력이 있는 변인은 조사연구 재교육경험( $\beta=.180$ )으로 재교육에 참여할수록 조사연구활용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성별( $\beta=.127$ )로 여성 사회복지사보다 남성 사회복지사의 조사연구활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조사연구실행경험( $\beta=.109$ )과 학회가입수( $\beta=.101$ )로 나타났다. 즉 스스로 조사연구를 실행한 경험이 있을수록, 그리고 학회가입수가 많을수록 조사연구활용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연구태도는 조사연구활용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사회복지사의 조사연구활용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모형1	
	b	beta
상수	.841	
<b>배경변수</b>		
성별	.390	.127*
나이	-.020	-.083
실무경력	-.002	-.064
실무태도	-.014	-.003
직접서비스비율	-.005	-.078
<b>조사연구관련변수</b>		
수강조사과목수	.075	.056
조사연구재교육경험	.650	.180***
학회가입수	.234	.101*
저널이용경험	.094	.228***
조사연구실행경험	.370	.109*
<b>조사연구태도</b>		
조사연구의 중요성	-.045	-.012
조사연구의 유용성	.295	.103+
R-square	.192	
Adjusted R-square	.167	
F	7.740***	

\* $p<0.05$ ; \*\* $p<0.01$ ; \*\*\* $p<0.001$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전국 각 유형의 사회복지기관에서 표집한 사회복지사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조사연구활용에 대해 살펴보았다. 우리 나라 사회복지사들의 조사연구활용정도는 매우 낮은 단계에 있지만, 조사연구의 중요성이나 유용성에 대한 태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사들이 조사연구활용을 하는데 있어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로는 저널이용경험, 조사재교육경험, 성별, 조사연구실행경험, 가입학회수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가지고,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조사연구활용을 위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조사연구활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조사연구관련 재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실제 본 연구결과 재교육경험자는 21%에 불과하였고, 조사연구를 실행한 경험이 없다는 사회복지사들의 가장 중요한 요인중 하나가 조사연구에 대한 낮은 지식수준에 기인한다. 또한 재학시절 조사과목을 수강했다고 해도 이는 조사연구활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따라서 현장의 사회복지사들이 쉽게 자신들의 현장과 조사연구를 접목할 수 있는 연구방법에 대한 재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재교육은 대학과 연계하여 실시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으며, 이와 함께 현장 사회복지사를 위한 사회복지실천단계별 조사방법의 적용에 관한 입문서나 알기 쉬운 조사방법 등과 같은 교과서도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조사연구관련 학회참석이나 저널구독에 대한 기관 차원의 배려와 지원이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 많은 사회복지사들은 본인의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조사연구를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널을 많이 읽을수록 조사연구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사회복지사들이 조사연구에 관심을 가지고 저널을 대하고, 학회에도 가입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 기관차원에서 배려가 필요하다고 본다. 현재 사회복지사들이 가입하고 있는 학회의 수는 평균적으로 0.34개에 불과한 실정이다. 기관의 지원이 없이는 사회복지사의 실무활동에 조사연구활용 및 적용은 매우 어려워진다. 정신보건사회사업학회처럼 사회복지사들이 학회에 참석하면 보충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통해 사회복지사들이 학회와 저널을 대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셋째, 사회복지사들이 실천현장에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연구가 많이 발표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복지사들은 조사연구활용을 못하는 이유로 관련연구의 부족을 지적한다. 실제로 자신의 실천현장에 적용하고 싶어도 적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연구가 부족하다는 이야기다. 사회복지에서 현장과 유리된 조사연구는 현장에 아무런 함의를 제공할 수 없다. 따라서 연구자들은 사회복지사와 공동의 노력을 통

해 실제적인 연구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산학협동연구과정 등이 적극적으로 개설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조사연구의 결과가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실천중심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저널 등의 발표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저널의 발표없이 많은 사회복지사가 정보를 공유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Research on Social Work Practice'라는 저널이 새롭게 출간되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표출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넷째, 사회복지사들이 실천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단일사례연구 등과 같은 평가방법과 모델이 연구되고, 보급되어야 한다. 현재 사회복지사들에 의해 수행되는 대부분의 조사연구활동은 서베이를 통한 욕구조사와 서비스 만족도 조사 부분이다. 물론 본 연구결과 서비스 평가를 위한 노력도 상당부분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현실적으로 사회복지사들은 단일사례연구 등과 같은 전문적인 평가방법을 잘 모르고 있으며, 안다고 해도 어떻게 적용하고 해석하는가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따라서 서비스 효과성 평가에 필요한 쉬운 평가의 모델을 보급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 참 고 문 헌

- Barber, J.G. (1996). Science and social work: Are they compatible? *Research and Social Work Practice* 6:379-388
- Bloom, M. & Fischer, J. (1982). *Evaluating Practice: Guidelines for the Accountable Professional*. New Jersey: Prentice-Hall Inc..
- Casselmann, B. (1972). On the Practitioner's Orientation toward Research. *Smith College Studies in Social Work* 42: 211-233.
- Chavkin, N.F. (1993). *The use of research in social work practice: a case example from school of social work*. Westport, CT: Praeger.
- Epstein, I. (1996). In quest of a research-based model for clinical practice: Or, why can't social worker be more like a researcher? *Social Work Research* 20:97-100.
- Estabrooks, C.A. (1999a). The conceptual structure of research utilization. *Research in Nursing & Health* 22: 203-216
- Estabrooks, C.A. (1999b). Modeling the individual determinants of research utilization. *Western Journal of Nursing Research* 21: 758-772
- Fischer, J. (1973). Is Casework Effective?: A Review. *Social Work* 18: 5-20  
(1979). Isn't Casework Effective yet? *Social Work* 24: 245-247
- Globerman, J. (1993). Teaching critical appraisal of the social work literature. *Journal of Teaching in Social Work* 7(2):63-80.
- Gordon, J.E. (1984). Creating Research-based Practice Principles: A Model. *Social Work Research and Abstract* 3-6.
- Haynes, S.N., Lemsky, C., & Sezton-Rad다, K. (1987). Why Clinicians Infrequently Do Research. *Professional Psychology: Research and Practice* 18: 515-519
- Heineman, M.B. (1981). The Obsolete Scientific Imperative in Social Work Research. *Social Service Review*.
- Herie, M. & Martin, G. W. (2002). Knowledge Diffusion in Social Work: A New Approach to Building the Gap. *Social Work* 47(1):85-95
- Hess, P.M. & Mullen, E.J. (Eds.). (1995). *Practitioner-researcher partnerships: Building knowledge from, in, for practice*. Washington, D.C.: NASW Press.

- Howard, M.O., McMillen, C.J., Pollio, D.E. (2003). Teaching Evidence-Based Practice: Toward a New Paradigm for Social Work Education. *Research on Social Work Practice* 13(2):234-259
- Hudson, W.W. (1978). First Axioms of Treatment. *Social Work* 23: 65-66.
- Kirk, S.A. & Rosenblatt, A. (1981). Research Knowledge and Orientation among Social Work Students. In S. Briar, H. Weissman, & A. Rubin (Eds.). *Research Utilization in Social Work Education*. New York: Council on Social Work Education. 4-39
- Klein, W.C., & Bloom, M. (1994). Is there an ethical responsibility to use practice methods with the best empirical evidence of effectiveness? In W.W. Hudson & P.S.Nurius (Eds.), *Controversial issues in social work research*. Boston: Allyn & Bacon.
- Lazar, A. (1991). Faculty, Practitioner, and Student Attitudes toward Research. *Journal of Social Work Education* 27: 34-40.
- Lindsey, D., & Kirk, S. (1992). The continuing crisis in social work research: Conundrum or solvable problem? An essay review. *Journal of Social Work Education* 28:370-381.
- Mancoske, R.J., and Pui-fong, Y.L. (1990). Practice Evaluation Attitude: Hong Kong Social Workers. *International Social Work* 33: 311-324.
- Penka, C.E. & Kirk, S.A. (1991). Practitioner Involvement in Clinical Evaluation. *Social Work* 36: 513-518
- Reid, W. J. (1994). The empirical practice movement. *Social Service Review* 68: 165-184.
- Reid, W.J. & Hanrahan, P. (1982). Recent Evaluation of Social Work: Grounds for Optimism. *Social Work* 36: 513-518.
- Rosenblatt, A. (1968). The Practitioner's Use and Evaluation of Research. *Social Work* 13: 53-59.
- Rothman, J. (1978). Conversion and Design in the Research Utilization Process. *Journal of Social Service Research* 2: 117-131
- Rubin, A. (1985). Practice Effectiveness: more Grounds for Optimism. *Social Work* 30: 469-476.
- Thomlison, R.J. (1984). Something Works: Evidence from Practice Effectiveness Studies. *Social Work* 29: 51-56.
- Tripodi, T. & Epstein, I. (1978). Incorporating Knowledge of Research

- Methodology into Social Work Practice. *Journal of Social Service Research* 2: 65-78.
- Vigilante, J. (1974). Between Values and Science: Education for the Profession during a Moral Crisis or is Proof Truth? *Journal of Education for Social Work* 10.
- Whittaker, J.K. (2002). The Practice-Research Nexus in Social Work: Problems and Prospects. *Social Service Review* 72: 686-694.
- Wood, K.M.(1978). Casework Effectiveness: A New Look at the Research Evidence. *Social Work* 23: 437-458.
- Wynne, L.C. (1983). Family Research and Family Therapy: A Reunion?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9: 113-117
- Zlotnik, J.L., Biegel, D.E., Solt, B.E. (2002). The Institute for the Advancement of Social Work Research: Strengthening Social Work Research in Practice and Policy. *Research on Social Work Practice* 12(2): 318-337
- 김연옥 (1993). 사회사업가의 조사연구에 대한 태도와 활동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5: 201-224
- \_\_\_\_\_ (1998). 우리나라 사회복지학 연구경향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35: 85-105
- 양옥경 (1998). 사회복지연구동향. 한국사회복지학회 추계학술대회.
- 이창호 (1990). 한국사회사업의 정체성의 위기와 과제. *사회복지연구* 2: 95-120
- 최 균 (1995). 한국 사회복지학 연구의 분석과 과제. 1995년도 한국사회복지학회 추계학술대회자료집: 1-14.
- 황성철 (1998). 사회사업실천의 효과성에 관한 논쟁과 미국 사회사업의 발전: 임상적 실천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34: 215-245.